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도전

전북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 개최… 수출 확대 전략 논의 등
해외 식품박람회 · 유통망 확대 ·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2025년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주재로 시군, 수출지원기관, 수출 전문가 및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무역 동향 및 대응 방안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계획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식품기업 사례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억 9,687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부터 물류비 보조 중단에 따른 시군 단위 '수출 농산물 경쟁력 강화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해외거점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 및 판촉 홍보 행사 확대 △'농식품수출 114' 현장 행정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전북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유망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거점 유통망 구축 및 판촉 홍보 △신선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집중 육성 △해외 식품시장 분석 및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 수출114'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수출 농가 및 농식품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 시군 및 수출지원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설 · 한파 · 강풍 대비 '총력전'

도, 시군 및 관계부서 대책회의…7~8일 5~15cm 적설 예상
주요 · 고갯길 등 교통혼잡 대비 사전 제설작업 준비 지시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일까지 전북 전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5~20mm)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 협업기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도내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기온 하강과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난방 상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출 시 동상 방지를 위한 방한장비 착용을 권장하는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대설, 한파 대비 계획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속적인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도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 보험 확대

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 별도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
부터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신설… 사회재난 보상금 2배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를 확대하여 재난 및 사고 피해로부터 도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생활 안정 지원에 힘써왔다.

2025년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자연재난 사망 △강력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페이의 '동네무료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시군의 재난부서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혈액원, 혈액 보유량 위기 '경고등'

혈액 수급 위기 단계… 도민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 절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은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서 일부 혈액형은 4일분도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근 헌혈이 이처럼 줄어든 이유로는 겨울 방학기간이라 학생들의 헌혈 참여가 줄어들었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독감이 유행한 데다가 긴 연휴까지 겹쳐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북의 헌혈자 수는 1년 전보다 17%가 줄어들었고, 이처럼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도내 혈액 보유량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을 넘게 가지고 있어야만 적정 보유량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도내 혈액 보유량은 이를 밑돌고 있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한 형편이다.

전북혈액원 엄문영 홍보담당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혈액 보유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B형은 약 6.9일분을 확보하고 있고, A형은 약 3.5일, AB형은 약 3.7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아 현재 혈액 수급 위기 단계 가운데 '관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휴 기간 중단됐던 수술이 재개되면 혈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관계자는 "아직도 인위적으로 혈액만큼은 만들 수 없고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발적인 도민들의 참여로 부족한 헌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바랄뿐이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헌혈의 소중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서도 지난달 헌혈 공로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혈액 부족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화재 전년 대비 4.2% 감소

맞춤형 화재 예방 교육 · 노후 산단 대상 화재 안전 대책 '성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본부장 이오숙)는 2024년 도내 화재 발생 건수가 2,075건으로 전년 대비 4.2%(92건) 감소했으며, 재산 피해 또한 269억여원으로 24.2%(85억여원) 줄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86명으로 4.4%(4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증가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임야화재는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81건으로 27%(30건) 감소했다.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농촌지역 마을회관 화재예방·대피교육'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시설 화재 또한 2023년 256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1.7%(30건) 줄었다. 이는 '산업단지 등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산단46개소 및 2,742개 입주업체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조사, 예방협의체 운영, 안전컨설팅' 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5-177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온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
   ○ 명칭 : 죽림 온천공보호구역
   ○ 지정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65-5, 363-11, 363-12, 368번지
   ○ 지정면적 : 6,455㎡
   ○ 양수량 : 330톤/일
   ○ 수온 : 28.2℃
   ○ 수질 : Na-SO4형
   ○ 심도 : 989m
   ○ 수위강하량 : 72.41m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4.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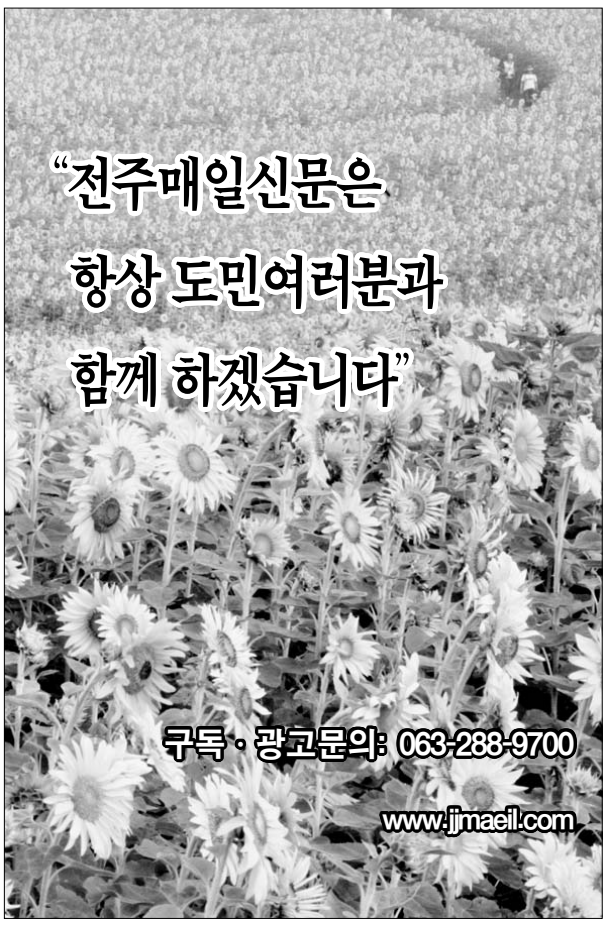
2025년 2월 6일 완주군수

정읍시 공고 제2025-189호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1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원
   나. 근거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 목적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농업진흥지역 8.3ha → 농업진흥지역 밖 8.3ha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1. 23. ~ 2025. 2. 6.(15일간)
   나. 열람장소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정읍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열람내용 : 해제(안)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 팩스 : 063-539-6533
3.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539-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변경·해제 대상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정읍시장